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성경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하는 인간의 죄악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3장의 선악과 사건,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행한 근친살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기 전까지,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과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의미는 사랑, 신실, 생명, 의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여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 즉 살아있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7:29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결점이나 부족이 없는 상태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6:5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13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인처럼 사람의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여서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여건이 되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죄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신 이 후에 성경을 불과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서, 인간 죄악의 용량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멸망하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의로운 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기 전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오직 노아만이 순종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을 외면하였습니다.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태평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눅17:27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대의 죄악이 노아가 살았을 당시의 죄악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에 둔 시대인 것입니다. 꼭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각자의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

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 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안일하고 태평한 마음으로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의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노아의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오늘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6:25 말씀에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의미 없이 하루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